

# 高麗時代 釜山地域의 文化財 現況과 그 歷史的 意義

김 현 라  
(부산경상대 강사)

## 차 례

- I. 머리말
- II. 고려시대 문화재의 현황
  - 1. 행정 문화재
  - 2. 불교문화재
  - 3. 국방문화재
- III. 지방세력의 형성과 문화재
- IV. 지방불교와 문화재
- V. 왜구의 침입과 문화재
- VI. 맺음말

## I. 머리말

부산에 있는 고려시대 문화재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다른 시대에 비해서 자료와 그에 따른 문화재가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여러 측면에서 그 원인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부산은 견훤이 절영도의 명마 한 필을 사신편으로 고려 태조 왕건에게 보냈다는 『고려사(高麗史)』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후삼국 시대 후백제의 영향 아래에 있었고 이 때문에 그 뒤에 고려왕조로부터 소외되는 지역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부산은 철저한 변방지역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는 나말여초는 지방세력인 호족이 난립하는 시대이다. 하지만 부산에는 독자적인 호족세력의 성장을 밝힐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물론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동래현(東萊縣) 인물조에 정문도(鄭文道) 등의 동래정씨 세력이 있어 그 가능성은 상정해 볼 수 있다. 즉 정문도는 읍리(邑吏) 출신으로 세 아들을 모두 과거에 급제시키고 있으며, 이는 그의 후손들의 묘지명(墓誌銘)에서 사실로서 확인이 된다. 읍리는 고려기의 지방사회에서 호장(戶長)·향리(鄉吏) 등으로도 불려지는 지방 토호층으로서 대개는 나말여초의 호족(豪族)에서 전화된 것이다. 그러므로 동래 정씨 일족 가운데서 이 지역을 이끌어 가는 세력가가 나왔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실제로 그들의 행적을 밝힐만한 자료를 찾을 수는 없다. 이것은 아마 김해지역의 문화권 속에서 그들의 독자적인 위치를 찾는데 실패하였거나, 혹은 후백제의 이른 공략을 받아서 더 이상의 성장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두 가지 이유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앞의 설명은 인근의 김해, 진주 등지의 소율희(蘇律熙), 윤웅(閔雄) 등의 강력한 호족세력의 그늘에 들어 있었던 지역이었을 것이라는 것과 뒤의 것은 앞서도 설

명했듯이 부산은 후삼국의 쟁패기에 일찍이 후백제의 강력한 영향력 속에 있었던 지역이라는 추측이다. 따라서 부산은 고려시대 세인의 관심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이것은 고려시대 부산에 대한 인식으로 각인이 되어 부산지역사 뿐만 아니라 문화재 연구에도 영향을 주어, 단순히 유물에 대한 설명에만 그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덕천동 실내빙상장 건립지에서 나온 고려청자의 발견은 그 우수성으로 인해 이러한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곳에는 고려청자의 완형(完形)과 고려인만이 사용한 동경(銅鏡)이 세트를 이루어 출토되고 있어 이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잘 알릴 수 있게 되었다.

우리들은 보통 기록상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심 밖의 지역이라는 선입관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문화재에 대한 관심의 소홀로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앞서 덕천동의 고려청자 발견의 예를 빌어본다면 고려시대의 부산에 대한 인식도 어느 정도는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은 자료이지만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좀더 활발한 고려시대의 모습을 상정할 수 있으리라 본다.

## II. 고려시대 문화재의 현황

부산에 있는 문화재는 전체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로는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등으로 나누어지며, 시지정 문화재로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그리고 문화재자료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국가지정문화재로는 고려시대의 것은 없고 시지정문화재에서 유형문화재로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5층석탑(9호),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3층석탑(10호), 범어사 원효암

동편 3층석탑(11호), 범어사 원효암 서편 3층석탑(12호),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5층석탑(13호), 만덕동에 있는 만덕사지 당간지주(14호), 강서구에 있는 범방동 3층석탑(22호) 등이 있고, 기념물로 만덕사지(3호), 정과정터(54호) 등이 있다. 그 외에도 분묘와 출토 유물로 사직동 석곽묘, 만덕동 출토유물, 망미동 출토유물, 연산동, 거제리, 구포동, 명장동 유물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문화재 자체만을 연구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문화재를 통해 그 당시의 정치세력, 사상, 대외관계를 복원해 보려는 측면에서는 많은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필자는 논의의 편의상 행정문화재, 불교문화재, 국방문화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한다.

## 1. 행정문화재

행정문화재라는 용어가 생소한 것은 문화재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문화재란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자료이므로 다양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문화재를 범주화시킬 수 있다고 보여진다. 먼저 행정문화재라고 할 때 우선 떠오르는 것은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 장소를 말할 것이다. 그러한 것으로 읍성이 대표적이다.

본래 성곽은 나무, 흙, 돌, 벽돌 등으로 벽을 쌓아 맹수나 외적을 방어하기 위한 축조물로써 일자형, 둥근형, 4각형, 반월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성곽이란 엄밀히 말하면 내성과 이를 둘러싼 외곽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군사목적과 이 성곽 속에 안전하게 행정사무를 보는 행정 목적의 복합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후 조선시대까지 수많은 성곽의 축조를 볼 수 있다. 특히 고려말부터는 왜구침입에 대비하여 성곽이 해안지대에 산재했으며 기록에는 수령의 행정청도 군사침입에 대비하여 성곽

을 쌓게 했다고 한다. 이를 보통 읍성이라고 한다.<sup>1)</sup> 고려시대 동래현(東萊縣)과 동평현(東平縣)의 치소와 기장읍성(機張邑城) 등이 그것이다.

『고려사』 지리지에 의하면 고려시대 부산은 경상도 동경(東京) 관할인 울주군(蔚州郡)과 양주군(梁州郡)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 중 울주군에는 동래현이, 양주군에는 동평현과 기장현이 속현(屬縣)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부산은 주군·주현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고, 두 지역으로 나누어져 통치되었다. 그러나 고려 17대 인종조(仁宗朝) 이전에 동래현과 기장현은 주현으로 승격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는 예종조 이후부터 감무(監務)의 파견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과 동래정씨가문의 성세, 그리고 왜구침입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이 이 지역의 현세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동래는 주현으로 승격되면서 동평현과 그 외 부곡·향을 두게 되었으며,<sup>2)</sup> 기장현은 이인로(李仁老)의 아들인 이세황(李世黃)이 기장현의 감무로 좌천되었다는 기록이 『파한집(破閑集)』에서 발견되고,<sup>3)</sup> 공양왕 3년에는 기장군<sup>4)</sup>이라는 이름이 『고려사』에 보이므로<sup>5)</sup> 그 현세를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주현의 승격은 지방관의 파견으로 이어지게 되고 성곽이 상당히 중요한 행정치소로 등장하게 된다. 물론 동평현은 지방관의 파견이 이 시기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삶이 형성된 지역이므로 성곽이 형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동래현과 기장현, 그리고 동평현 성곽의 흔적이 이 행정문화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특히 동래현의 경우는 해

1) 孫永植, 『韓國 城郭의 研究』,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7.

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3, 동래현, 고적조.

3) 『파한집』 발문.

4) 『고려사』에 보이는 기장군에 관한 것은 기장현의 誤記라는 것(이종봉, 「기장의 역사」 『기장군지』 상, 2001)과 이 시기에 기장의 군세가 상당히 세어져서 나온 기록(김기섭, 「기장군의 역사와 문화유산」 『한국민족문화』 8, 1996)이라는 설이 있다.

5) 『고려사』 권82, 병2, 정보, 공양왕 3년 3월조.

운포 지역과 지금의 동래시장 일대의 두 곳이 치소(治所)로 등장하는데, 그것은 고려말기 우왕때에 왜구의 침입을 이유로 해운포에서 동래시장 지역으로 치소를 옮겼기 때문이다. 동래고읍성의 치소는 2002년 시굴조사된 현재 수영구 망미동 소재의 현 부산지방병무청과 포스코 아파트 건설 현장 일대이고, 동평현의 치소는 1992년 발굴조사된 현재 부산진구 당감동 일대로 확인되었다. 기장성은 현재 기장군 교리에 있는 고읍성을 가리킨다.

## 2. 불교문화재

불교는 고려 전시기를 관통하는 사상이면서 통치의 한 축이었다. 따라서 불교문화재는 고려 전시기를 대상으로 할 때는 다른 유물이나 유적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산을 한정시켜보면 불교문화재를 많이 발견할 수 없다. 이는 앞서도 설명했듯이 수도에서 떨어진 변방이었고 또 불교문화재를 수축할 수 있었던 지방 유력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을 그 이유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앞서도 보았듯이 덕천동에서 발굴된 청자 등의 유적이나 동래정씨 일가 등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현재 고려시대 사찰로 보이는 만덕사지(부산광역시 지정 기념물 제3호)의 사격에서도 그러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부산에서 고려시대의 불교문화재는 앞의 만덕사지와 여러 탑을 들 수 있다. 만덕사(萬德寺)의 초창이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고려사』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 의하면 공민왕 즉위년(1351) 12월에 충혜왕의 서자 석기(釋器)의 머리를 깎게 하여 만덕사에 유폐시켰다는 기록<sup>6)</sup>이 전하고 있어 왕자가 머물만한 사격

6) 『고려사』 권38, 공민왕 즉위년 12월조 ; 『고려사절요』 권26, 공민왕 즉위년 12월조.

(寺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만덕사지에는 3층 석탑재 이외에도 금당지로 보이는 장방형 축대(동서 68m, 남북 543m, 높이 약 4m), 당간지주, 불상대좌, 석등부재, 덕천천 건너 산등성이에 거대한 암석을 타원형으로 파서 만든 돌절구통 등이 있다.

다음으로 탑을 들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5층석탑,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3층석탑, 범어사 원효암 동편 3층석탑, 범어사 원효암 서편 3층석탑,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5층석탑, 범방동 3층석탑 등인데, 이들의 특징은 신라탑에 비해 탑의 규모가 작고 고준하다는 것이다. 이는 불교가 지방으로 전래되면서 탑의 규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3. 국방문화재

부산은 대몽항쟁기, 삼별초 항쟁, 왜구의 대두와 관련하여서 중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몽항쟁기에 최우정권은 강력한 항진을 표방하고 강화로 천도를 한다. 이후 고려정부는 조세운반 등 고려의 물자보급을 바다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6차 몽고 침입인 차라대(車羅大)의 공격이 고려의 물자보급로를 차단하여 강화정부의 항진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경남의 경우 합주·단계에 본영을 두고 합포(合浦), 사천(泗川), 김해(金海) 등 주로 조창(漕倉)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공략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여기서 부산은 인근 조창이 설치되어 있는 김해·마산 등지와 연계하여 조운(漕運)의 출입구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삼별초 항쟁시기에도 이 지역의 중요성으로 인해 일찍이 삼별초의 세력권 내에 편입이 되었다. 즉 삼별초 정부는 남도의 연해지방을 근거로 필요한 물자와 인원을 조달하고 일본과 연계하여 대몽전선을 꾸밀려고 하였다. 이러한 생각으로 해로의 요충지로서 중시되었던 동래, 가덕도, 거제, 밀성 지역을 주요한 활동무대로 삼았다. 또 이 지역은 포(浦)·강(江)·역참(驛站)·부곡

(部曲)·목장(牧場) 등 군현제의 말단에 위치하여 중앙정부로부터 가혹한 수탈을 받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삼별초 항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계기도 있지 않을까 한다.<sup>7)</sup>

고려말의 왜구침입도 조운선의 통행지역과 맞물리는데, 특히 부산을 비롯한 경남지역의 피해가 극심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에 왜구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시설과 군사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었고, 이러한 것이 왜구와의 통교를 위한 관문으로서 부산지역이 역사의 전면에 부각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유적지로 볼 수 있는 것이 동래읍성의 성곽 시설과 기장읍성, 봉수대, 기장산성 등이라 할 수 있다.

### Ⅲ. 지방세력의 형성과 문화재

부산지역의 행정문화재로 들 수 있는 것이 읍성이다. 읍성은 지방행정관서가 있는 마을에 관부(官府)와 민가를 둘러 쌓은 성으로 행정적인 기능과 군사적인 기능을 함께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 읍성은 주로 남해안·서해안지방과 변방에 주로 축조되었는데, 고을의 크기나 중요성에 따라 그 규모가 달랐다. 고려 말기에 축조된 읍성은 대부분이 토성(土城)이었으나 조선 초기에는 석성(石城)으로 바뀌고 그 규모가 확장되었다.

부산지역의 고려시대 읍성은 동래고읍성과 기장읍성 그리고 동평성을 들 수 있다. 한 지역에 세 개의 읍성이 존재했던 것은 당시 부산의 행정조직과 왜구침입 때문이다. 우선 행적조직면을 보도록 하자. 『고려사』 지리지에 의하면 고려시대 부산은 경상도 동경관찰의 울주군과 양주군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 중 울주군에는 동

7) 채상식, 「고려시대의 부산」 『부산시사』 1, 1989.

래현이, 양주군에는 동평현과 기장현이 편재되어 있었다. 부산은 이러한 행정조직으로 많은 읍성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려초기의 부산은 지방행정조직 하에 주현(主縣)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관의 파견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시기에 읍성은 단순히 지방민의 주거지 역할을 하는 것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고려중기에 주현으로 승격되면서 본격적인 읍성의 기능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고려시대에 지방관이 파견된 시기와 주현으로 승격된 이유를 알아보아 읍성의 성세를 보도록 하자.

본래 부산은 신라시대에는 상당한 지역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다. 이것은 이 시기에 동래고읍성이 조성되었다는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동래현조를 보면 「동래현은 옛 장산국(莠山國) 또는 내산국(萊山國)이었는데, 신라가 이를 취하여 거칠산군을 두었고, 경덕왕이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 고려 현종이 울주의 속현으로 하였다가 뒤에 현령을 두었다」는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이것을 다시 살펴보면 부산은 신라 경덕왕대에 거칠산군에서 지금의 동래현으로 재편되었으며, 거칠산군이란 군명은 현재의 대연동 뒷산인 황령산(荒嶺山)의 우리말인 「거칠피」에서 유래된 것이고 경덕왕 때 전국 지명을 한자화하는 과정에서 동래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었다고 본다.<sup>8)</sup> 이 때만 하더라도 동래현에는 2개의 속현이 부속되어 있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보이는 동평현과 기장현이 그것이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동래가 속현화되어 버려 신라와 다른 위상

8) 동래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 먼저 『삼국지』 변진 12개국 중 ‘독로국’이 ‘독내’, ‘독나’로 바뀌고 자음접변으로 ‘동나’ ‘동내’로 읽히며, 결국 ‘동래’라는 미칭으로 바뀌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정중환, 『瀆盧國考』 『백산학보』 8, 1970)과, 장산국의 ‘장(莠)’과 내산국의 ‘내(萊)’는 ‘거칠다’의 뜻이므로 거칠산의 동쪽이란 방위가 보태어져 ‘동래(東萊)’가 되었다는 설(정용숙, 「신라·고려시대 지방조직의 정비와 기장」 『한국민족문화』 8, 1996)이 있다.

을 지니게 되었다. 즉 나말여초를 거쳐 고려 현종(顯宗)때의 지방 군현 재편과정에서 동래군은 외관(外官)이 파견되는 최소단위로 서의 군현의 지위마저 상실하고 울주의 속현으로 전락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현종대에 동래가 속현으로 강등될 만한 이유를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결정은 아마 고려초기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이 현종대에 군현제 정비과정에서 사료상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습에는 고려에 귀부한 시기의 전후, 혹은 통일전쟁에서의 공로의 다소가 참작되었을 것이다. 고려기에 와서 동래군 지역이 독립된 지방행정 조직의 의미마저 상실하게 된 것을 통해, 후삼국 분립기 또는 고려 건국기에 부산지방을 이끌어 나가는 지방호족세력의 향배가 어느 편으로 향하고 있었던가를 유추해 볼 수가 있다. 부산은 아마 뒤늦게까지 고려에 귀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려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절영도와 관련하여 이미 언급하였듯이 후백제 견훤의 세력권 속에서 고려 태조와 계속 항쟁을 해 왔다면 후삼국 통일 후의 부산 지역이 그 독자적 위치를 상실하고 보다 유공한 인물이 배출된 지역의 속현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고려 인종조를 즈음해서 주현으로 승격되고 있다. 이러한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예종조 전후로 지방에 많은 감무(監務)가 파견되었다. 감무의 파견은 지방민의 유망에 따른 안집<sup>9)</sup>과 또 한편으로 지방의 성장이라는 일면을 볼 수 있다.<sup>10)</sup> 따라서 속현에서 주현으로의 승격은 상당히 많은 변화를 예고한다. 이 변화가 단순히 지방의 위상의 승격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세수취에 있어서 중심적인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 동래는 지방세의 성장으로 인하여 상당히

9) 박종기, 「고려시대 군현지배체제와 구조」 『국사관논총』 4, 국사편찬위원회, 1989; 채웅석, 「고려후기 지방지배정책의 변화와 ‘공호’의 파악」 『논문집』 1, 카톨릭대학 성심교정, 1995.

10) 김동수, 「고려중·후기의 감무 파견」 『전남사학』 3, 1989.

자립적인 안정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상을 가질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하나의 배경으로 지방세력의 성장을 들 수 있다. 바로 동래 정씨 가문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동래 정씨 가문은 고려초 동래지역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여 고려중기에는 정목(鄭穆), 정항(鄭沆), 정서(鄭敍) 등에 의해 왕실과 혼인을 맺으면서 그 절정에 달한다. 그러나 정서가 의종 5년(1115)에 동래에 유배되면서 가세가 기울었으나 무신난으로 의종이 폐위됨으로써 복권되었다. 동래 정씨 가문은 그 후 조선시대에도 계속 출사하면서 가문의 영광을 이어 오고 있다.

이는 동래정씨의 위상을 볼 수 있는 『동래정씨가록(東萊鄭氏家錄)』<sup>11)</sup>에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즉 동래 정씨 원조가 되는 정회문(鄭繪文)이 나말여초 어느 시기에 신라의 사신(使臣)으로 활동하고 있고, 후에 동생과 더불어 동래 지역에 솔가하여 호장(戶長)이 되었으며, 이 호장의 지위는 정지원(鄭之遠)과 정문도(鄭文道)에게 이어졌다고 한다.<sup>12)</sup>

동래 정씨 가문이 동래 「호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이들이 고려 태조 이전에 이미 동래지역에 기반을 잡았던 유력한 족단이었던 것 같다. 이는 당시에 『경상도지리지』 등에 동래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에 송(宋), 왕(王), 정(丁), 조(曹), 정(鄭)씨 가문이 토성(土姓)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하지만 나말여초에는 부산의 토착세력이었던 이들이 친후백제였거나 반왕건세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연유로 인하여 부산은 속현으로 강등되었으리라 본다.

그러나 동래정씨 가문은 11세기~12세기경에 활동하는 정목과 정항, 정서 등에 의해 문벌가문으로 성장하였다. 대개 지방 세력가

11) 『동래정씨가록』 권2, 1~2쪽.

12) 정목과 정항의 묘지명에 정항의 증조부 정지원과 조부 정문도가 동래의 호장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들은 중앙정계에 입문하기 위해서 이용한 것이 과거였다. 정목은 27세 되던 1066년(문종 20)에 성균시(成均試)<sup>13)</sup>에 합격하였다. 당시 검교장작감광릉직(檢校將作監廣陵職)에 있었던 고익공(高益恭)이 그를 눈여겨보다가 자신의 딸과 혼인시켰다. 그 다음해 1072년(문종 26)에 그는 대과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정목은 어렵게 이룬 집안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사침에 있어서 어떠한 편애도 하지 말기를 자식들에게 타이르고 있다. 그가 항상 애독하는 것이 바로 “벌레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독이 없어야 하고 나무는 타고난 수명을 얻기 위해서는 재목감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시경(詩經)의 한 구절인데, 이것에서도 그의 정서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정목은 지방관으로 재직하면서 지방토호로서 살아오면서 얻었던 경험을 잘 살려 현리(賢吏)가 되었다. 예를 들어 1084년(선종 1년)에 영청현(永淸縣)의 수령으로 있으면서, 그 지방의 피(벼과의 한해살이 풀)가 많아 묵히는 농토를 불로 태우게 하였다. 그리고 이 곳에 보리를 심어 많은 양을 수확하게 했다고 하니 아마 병충해와 잡초를 제거한 새로운 농법을 현민(縣民)들에게 가르친 것이라고 보여진다.<sup>14)</sup>

이러한 정목의 가르침으로 그의 아들인 정항(鄭沆:1080-1136)은 『고려사』에 입전될 만큼 명성을 떨쳤다. 정항의 아들 정서대에 오면 왕족과 혼인을 맺을 만큼 문벌가문으로 성장하고 있다. 정서(鄭敍, 1115?~1171?)는 부친 정항이 인종을 보좌한 공로와 청렴한 관직생활 덕으로 쉽게 인종과 동서간이 될 수 있었다. 그는 음서(蔭敍)로 정계에 진출한 후 내시낭중(內侍郎中)에까지 이르렀다. 정서는 인종비 공예왕후의 여동생을 아내로 맞아 인종과는 동

13) 성균시: 고려시대의 과거제도로 1032년(덕종1)부터 시행된 것으로 국가감에서 진사를 선발하던 시험을 말한다. 시험과목은 부(賦)와 시(詩)이며 감시(監試)·남성시(南省試) 등으로도 불리었다.

14) 김용선編, 「鄭穆墓誌銘」 『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001

서간이며 공예왕후는 그의 처형이 되는 인연을 맺었다. 정서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대녕후 경(大寧侯璟)은 인종의 둘째 아들로 그에게는 처조카가 된다.

대녕후 경은 모(母)인 공예왕후의 사랑을 받아 왕위에 오를 후계자로 지목되기까지 하였으나 아버지 인종의 만류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또한 의종은 즉위한 이후에도 동생인 대녕후 경을 경계하였고, 이를 눈치 챈 총신 정함(鄭誡)의 모함에 의해 대녕후 경은 제거되었다. 이러한 모함사건에 정서까지 연루되어 동래로 유배를 가게 되었던 것이다. 의종은 이모부인 정서를 동래로 유배 보내면서 곧 소환하겠다고 언약하였으나 오히려 1157년(의종 11)에는 본향 동래에서 외지인 거제도로 정서를 이배시켜 1170년 무신난으로 의종이 폐위될 때까지 거의 20년간 유배생활을 하게 하였다. 정서는 무신난 덕택으로 문신이면서 오히려 유배생활에 서 풀리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sup>15)</sup> 의종이 폐위되고 난 후 정서는 중앙 관직에 복귀하였으나 소환된 후 활동이 전혀 없고 그 행적이 모호하여 최후 물년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이후에도 동래정씨가문은 계속 관인을 배출하여 명문가로서의 명맥을 이어갔다.

이러한 정서의 흔적을 부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정과정 유적지이다. 정과정 유적지는 지금 부산광역시 지정 기념물 제54호로 관리되고 있다. 정과정은 정서가 동래로 유배를 온 후 정자를 짓고 오이밭을 일구면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과정곡’<sup>16)</sup>을 지은 곳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동래부지에 정과정은 ‘동래부 남쪽 10리에 있으며 그 터는 남아있다’<sup>17)</sup>고 되어 있다. 이 기록을 토

15) 『고려사』 권89, 종실1, 대녕후경.

16) 정과정곡은 다음과 같다. “내님물그리 와 우니다니 山점동세난이숫흐요이다 어니시며거츠르신들 아으殘月曉星이아르시리이다 녀시라도님은흐디 녀져라 아으벼기더시니위러시니잇가 漚도허물도千萬업소이다 물희마려신더 술웃븐 더 아으니미나를흐마니즈시니잇가 아으아소님하도람드으샤괴오쇼셔”(鄭武龍, 『정과정연구』, 신지서원, 1996).

17)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3, 동래현조.

대로 추정하면 정과정의 현재 위치는 수영강변을 따라 수영하수처리장 주변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일대 대부분의 지역은 개발 등으로 인해 원 지형을



정과정 터 (부산시 수영구)

찾기 어렵지만 중심지 일원 1240평 정도만이 원지형을 간직한 녹지로 남아 있다. 이 지역을 좀더 자세히 조사하면 경암(鏡岩)이란 바위가 있고, 보호수 1그루와 1984년 토향회(土鄕會)에서 세운 시비가 있는 등 자연 경관이 뛰어난 곳이다. 현재 시비가 있는 수영구 망미동에서 주변을 바라보면, 앞으로는 수영강이 흐르는데 이 동산 앞으로 흐르는 물을 과정천이라 한다. 수영강은 세 곳의 물을 받아 수영만으로 흘러 보내고 있는데, 오륜대에서 시발하는 무명천의 물이 합류하여 과정천이 되고, 수영강은 수영만 입구를 이르는 말이다. 이 과정천 건너편 모래밭이 삼각주로 바로 오이밭을 일군 곳이라 전한다. 이 모래톱에서 망배지로 건너오는 곳에 ‘오옹건내’라는 징검다리가 옛날에는 있었다고 전한다. 이 오옹건내는 정서와 깊은 관계가 있는 말로, 즉 ‘오옹’은 바로 오이할아버지이고 ‘건내’는 건너는 냇물이란 뜻이다. 정서는 이 냇물의 징검다리를 이용하여 망배지와 오이밭을 왕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 본 동래 정씨 세력은 동래를 상당히 중요한 지역으로 만들었을 것이고 이것이 고려 중기에 동래를 주현으로 승격시키게 되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주현으로 승격된 이후 동래는 동래고읍성에서 오랫동안 읍성으로서의 위상을 견지했으리라 본

다. 그러나 고려후기 왜구침입에 맞서 보다 적극적인 방어책으로 결국에는 동래고읍성에서 동래지역으로 치소를 옮기게 되었다. 이때 치소를 옮긴 가장 큰 이유가 해운포 지역이 바다에 가깝기 때문에 항상 왜구의 침입의 대상이 보다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동래고읍성지 터 전경

그러면 동래고읍성에 대해 알아보자. 물론 동래고읍성은 신라시대에 만든 성이지만 나말여초 시기에 읍성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고려중기 지방관이 파견된 이후부터 행정과 군사적 기능을 갖춘 읍성의 모습을 보여준 곳이라 할 수 있다.

동래고읍성에 대해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동래현 고적조에 “동래의 고읍성이 해운포에 있다. 동남은 석축이며 서북은 흙으로 쌓았다. 둘레가 4430척이나 지금은 무너졌다”는 기록이 보인다. 동래현 치소의 고읍성이 언제 축조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통일

신라 경덕왕(742~764)때 중전의 거칠산군을 동래군으로 개명할 때 동래군 치소를 이 곳에 두어 행정과 군사 양면의 목적으로 성곽을 축조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sup>18)</sup> 고려시대를 거쳐 계속 존속하다가 조선시대 1530년(중종 25)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편찬할 당시 이곳 성곽은 이미 황폐화되었던 것 같다. 동래고읍성의 치소는 최근 동의대학교 박물관과 경남문화재연구원의 시굴조사를 통해 지금의 수영구 망미동, 즉 부산지방병무청과 포스코 아파트 건설 현장 일대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해운포에 있었던 동래의 치소가 1387년(우왕 13)에 동래시장 쪽으로 옮겨졌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원수 박위가 1387년(우왕 13) 8월 19일 성축에 착수하여 한 달 이상 걸려서 완공하였다’는 것이다. 박위가 동래현에 축성하게 된 이유는, 1350년(충정왕 2)부터 급격히 창궐한 왜구에 의해 동래현도 여러 번 침탈을 겪게 되고 성이 황폐해짐에 따라, 박위는 일찍 김해부사로 있을 때 망산성을 쌓아 왜구를 크게 물리친 경험을 토대로 동래에 행영(行營)함에 축성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 한다. 그 당시 성은 석축으로 둘레 3,090척, 높이 13척에 6개의 우물이 있었다고 한다. 물론 지금의 동래읍성은 조선시대 것이지만, 복천박물관 학술연구총서인 『동래읍성지』를 참조해 보면, 고려시대 읍성의 흔적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즉, 조선전기에 수축한 읍성은 기단부를 입수적(立垂積)하고 그 상부를 횡평적(橫平積)하고 있는데, 동래읍성은 방형 또는 장방형의 석재를 이용하여 외면을 석축하고 그 내부를 성토한 내탁식(內托式)<sup>19)</sup> 성벽으로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조선시기의

18) 『고려사』 권82, 병2, 성보, 현종 12년에 동래성의 수축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 신라시기에 만들어진 성에 대한 개축 기사로 보인다.

19) 내탁식: 성벽을 축조할 때 외벽만 석축으로 하고 내부는 흙으로 채우는 것을 내탁이라 하여 우리나라 석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내탁식은 산지에서 많이 이용되었다. 산을 의지하여 내탁한 경우는 산탁(山托)이라 하기도 하였다.

석성 이전에 토성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이며, 기존의 토성을 이용하여 그 외면에 석축으로 보강하여 석성을 완성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토성의 범위를 알 수 있는데 토성의 범위가 바로 고려 시대의 읍성의 규모가 아닌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복천동 고분군을 중심으로 서장대(西將臺)<sup>20)</sup> 쪽이거나 동장대(東將臺) 쪽으로 추정하고 있다.<sup>21)</sup>

다음은 동평현성에 관한 것이다. 동평현은 앞서 본 동래와 달리 주현으로 승격되지 못하고 고려말까지 양주의 속현으로 남아 있게 된다. 이는 아마 동평현이 동래현과 읍격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초기에 편찬된 지리지에서 확인이 되는데, 『경상도지리지』나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동래현과 동평현의 호구는 290:108로 약 3:1의 비율이 되며, 동래현의 토성이 다섯인데 비하여 동평현은 단 하나에 불과하였다. 동평현 소재의 성의 수축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래현 동평현성조에 보인다. ‘현의 남쪽 20리에 있다. 동남은 석축이고 서북은 토축이다. 둘레가 3508척이나 지금은 허물어졌다’는 간결한 기록이 그것이다. 동평현성은 이 곳에 살았던 주민들의 생활근거지로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동평현성 성터는 1992년 부산시립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하여 현재 부산진구 당감동 350번지 일대로 확인되었다.<sup>22)</sup>

20) 장대: 전투시 군사의 지휘에 용이한 지점에 축조한 장수의 지휘소를 말한다. 장대는 모든 성에 둔 것은 아니고 성곽의 규모가 크고 중요한 성곽에 두었다. 또한 장대는 성내 지형 중 가장 높고 지휘, 관측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였는데 성내 면적이 넓고 한 곳에서 지휘하기 곤란한 지형에서는 지휘에 편리한 곳에 장대를 추가로 두어 방향에 따라 동서남북 장대라는 이름을 붙였다. 또 장대는 평상시에는 성관리와 행정기능도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장대의 위치는 성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형에 따라 성벽에 붙여 설치하기도 하였다.

21) 『동래읍성지』, 복천박물관 학술연구 총서 제13집, 2001.

22) 부산시립박물관, 『年報』 15, 1992



동평현성지 위치도

동평현성지 터 전경

이 발굴로 인해 처음으로 동평현을 주목하게 되어, 부산지역사의 연구에 큰 진전을 가져왔다. 동평현 성터는 앞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 이외 일본인의 조사기록에 남북 직경이 448m, 동서직경이 305m, 둘레 1,350m, 면적 10,845,423㎡(3,129,490평)으로 동서남문이 있었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발굴조사에서 성벽 축조법과 남문지(南門址), 배수구 등을 조사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동평현성은 3차에 걸쳐 판축법<sup>23)</sup>으로 성벽을 축조 또는 보수하였으며, 출토유물로는 기와, 청자, 분청사기, 백자편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기와편에는 ‘남면동래군(南面東萊郡)’ ‘대평(太平)’ ‘문개(文蓋)’ ‘삼품(三品)’이라는 명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평은 거란 연호 태평(太平, 1021~1030)으로 추정된다. 또한 1차 축조와 관련있는 퇴적층에서 신라말 고려초의 녹청자기완(綠靑磁器盥)이, 그 위층에서는 고려청자 및 조선전기 왜란 이전에 주로

23) 판축법이란 토성 축조공법의 하나로 목계(木桂)를 성벽이 될 부분의 양쪽에 세우고 판자를 고정시켜 이 판자 사이에 흙을 충전하고 절구공이 같은 것으로 다지고 다시 그 위에 흙을 층층히 충전하면서 다지기를 반복하여 성벽을 축성하는 공법이다. 이 판축법은 삼국시대에 토성축조에 도입되어 유행하였다고 한다.

제작된 분청사기편, 백자편이 출토되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동평현 성곽은 신라말에서 조선초기까지 존속한 치소성곽으로 추정하고 있다.<sup>24)</sup>

동평현 치소 성지의 폐성 시기는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 권154에 동평현성이 석성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점과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동평현성이 허물어져 없어졌다고 하는 기록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자료를 종합하여 동래현과 동평현 치소 성곽의 연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25)</sup>

- ① 통일신라 경덕왕(742~764)때 거칠산군을 동래군으로 개칭하고 동래군 아래 동평현과 기장현을 둬.
- ② 고려 1018(현종 9)년 경상도 동경의 영군 5곳 중 울주의 속현 동래현과 양주의 속현 동평현과 기장현이 있다.  
동래현 치소 성곽: 수영구 망미동 부산지방 병무청과 포스코 아파트 건설 현장 일대로 토축과 석축으로 조성되었음.  
동평현 치소 성곽: 부산진구 당감3동 일대로 토축과 석축으로 만들어졌음.
- ③ 고려 인종대 이전에 동래현과 기장현은 주현이 되었음.
- ④ 고려 1387(신우 13)년 9월경에 동래현 치소 성곽을 지금의 동래시장일대로 이전하였음.

다음은 기장성에 대해 보도록 하자.<sup>26)</sup>

기장 지역도 통일신라 경덕왕대 지방제도의 재편과정에서 갑화양곡현(甲火良谷縣)에서 기장현(機張縣)으로 개명되었다. 기장은 신라시대 주현에서 통일신라 이후는 속현으로 강등되었다. 강등의

24) 나동욱, 「부산지역의 성지에 관한 검토」 『박물관연구논집』 2, 부산시립박물관,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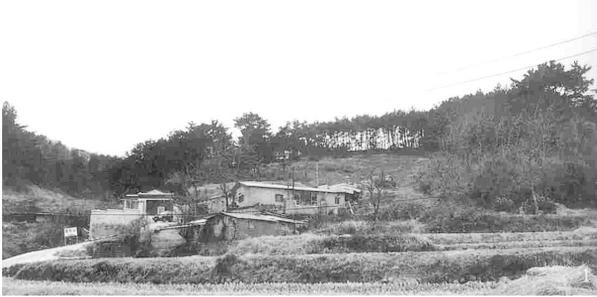
25) 정길자, 『부산의 역사와 문화재』, 으뜸출판사, 2001.

26) 기장성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8을 참조하였다.

주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통일 이후 신라 정부는 확대된 영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군현제를 새롭게 개편하고 있는데, 영역의 확대에 의해 지방의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할 수는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세종실록지리지』에 실려 있는 기장의 토지와 호구를 보면 상당히 적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의 규모가 상당히 적었다는 이유로 속현으로 강등되지 않았을까 한다.<sup>27)</sup> 동래의 속현으로 강등되었으므로 통일신라 말기 기장은 동래지역과 운명을 같이 하였을 것이다. 즉 후백제의 대외팽창으로 동래지역이 후백제 견훤에게 점령됨으로써 기장도 복속된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시대의 기장은 신라시기의 연장선에서 계속 존재했을 것이다. 다만 시기를 달리 하여 영속관계가 조금씩 달랐다. 즉 통일신라 어느 시기에 양주의 속했다가 고려시대 현종대에 울주에 다시 이속되고 있다. 그러나 기장도 고려중기에 주현으로 승격되었으리라 보인다. 물론 기장에 성을 수축한 기록은 『고려사』 권82, 성보, 공양왕 3년 3월조에 “기장군과 해주(海州) 웅진(甕津)에 성을 쌓았다”는 것에서 보이지만 실제로 고려말 이전부터 읍성이 존재했음은 기장지역의 고읍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전국적으로 읍성이 많이 수축 또는 개축되는 때이고,<sup>28)</sup> 동래성도 왜구에 대비한 전국의 수축령에 의해 개축되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기장에도 이러한 목적에서 수축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1396년(태조 5)에 왜선 120척이 동래·기장·동평성을 함락하고 병선을 탈취해 간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에 아마도 기장읍성은 붕괴되었지 않았을까 한다.

27) 이종봉, 앞의 논문.

28) 고려말에 성을 수축한 기록은 29사례에 달하며, 그중 경상도 지역은 22회나 차지한다(심정보, 『한국읍성의 연구』, 학연문화사, 1995, 49쪽).



기장읍성지 터 전경



기장읍성 성벽 일부

고려시대의 기장읍성은 조선 세종대에 세워진 읍성에 대해 고읍성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고읍성을 이 시기의 것으로 상정하는 이유로는 첫째로 이 곳에서 수습된 유물은 기와가 거의 전부인데 대개 고려·조선초기의 것이다. 또 『경상도읍지(慶尙道邑誌)』 권19, 기장현 고적조에 「고읍성은 지금 향교가 그 안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기장향교 근처가 바로 교리 지역의 고읍성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이 고읍성을 신라시기의 것으로 보고 있다는 연구가 있지만 현재 어느 것에서도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볼 수가 없다. 또한 기장 고읍성은 토성이므로 고려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고읍성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지금 치소의 동북 5리에 있으며 토축으로 둘레는 3,208척이다’<sup>29)</sup>라고 기록되어 있다. 성벽은 현재의 기장군 옛 임시청사 뒤 새트산의 동쪽 구릉의 정상부를 따라 계곡을 건너 향교의 북서쪽 능선에서 교리 뒷산을 거쳐 향교의 동쪽으로 내려오는 평면 타원형으로 남아있다. 입지조건으로 보아 배후의 산지와 그 앞쪽의 평지일대에 걸쳐 성벽을 축조하는 평산성의 형태를 띠고 있다. 잔존 토성 둘레는 1,300m 정도로 서문 터로 추정되는 서쪽 계곡 일부와 향교의 동편에서 옛 기장군

29)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3, 기장현, 고적조.

청사 자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성벽이 확인된다. 훼손된 성벽을 포함한 추정 길이는 총 1,325m 정도이다.

옛 기장군청의 뒤편 구릉 서북쪽으로 축조된 토성벽의 안쪽으로는 약 5m 정도 폭의 평지가 성벽을 따라 계속되고 있으며, 해발 57.9m 부근 구릉 정상부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둔덕이 형성되어 있다. 이 둔덕과 내벽의 접합지점에는 성벽과 나란히 직경 20cm 정도 크기의 석재가 일렬로 늘어서 있다. 여기서 서북쪽으로는 계곡을 형성하고 있어 문지(門址)의 존재 가능성이 보이나 도로개설과 유치원의 신축으로 인하여 성벽이 훼손되었다. 토성벽은 유치원 뒤쪽 대나무 밭을 통과하여 해발 125m의 새트산 동쪽 구릉으로 통과하여 북쪽 계곡에 이르러 그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통상 계곡 같은 곳에서는 석축을 쌓는 것이 특징이나 주변에 성의 돌로 보이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계곡이 있는 서쪽 도로변에서 성벽의 단면이 확인되었는데, 단면을 통하여 토성의 축조수법을 보면 성벽은 기단부에 석축을 1~2단 배치하고 그 위로 토사를 판 기와가 퇴적되어 있는데 성벽 위의 여장(女牆)<sup>30)</sup>이나 성벽 위에 덮은 기와가 아닌가 추정된다. 이곳에서 산 정상쪽으로 능선의 정부(丁部)를 따라 토루(土壘)가 축조되어 있는데, 토루의 폭은 약 6m 내외이고, 잔존 높이는 약 1~3m 정도이다. 토성의 해발 90m 지점에는 약간의 평지가 조성되어 있고, 곳곳에 건물지로 추정되는 초석이 보이고 있으며 기와편도 많이 보인다. 토성의 가장 높은 해발 101.9m 지점에서는 성벽의

30) 여장: 체성 위에 설치하는 구조물로 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낮게 쌓은 담장을 말한다. 다른 용어로 여담, 여첩(女堞), 치첩(雉堞), 타(堞), 여원(女垣) 등이라고도 하고 고어로 '성각휘' '성가퀴' 등으로 불려졌다. 여장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성곽을 세운 초기부터 보인다. 대개 여장에는 총안(銃眼)까지 갖추어 방어력을 높이고 있는데, 석성의 대부분은 여장을 설치하였으나 토성의 경우는 여장의 형태를 유지하기 어려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충북 청원군 정북리토성에 여장을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일부 단절이 보이고, 평탄한 지형의 존재로 볼 때 문지의 가능성이 있으나 정식 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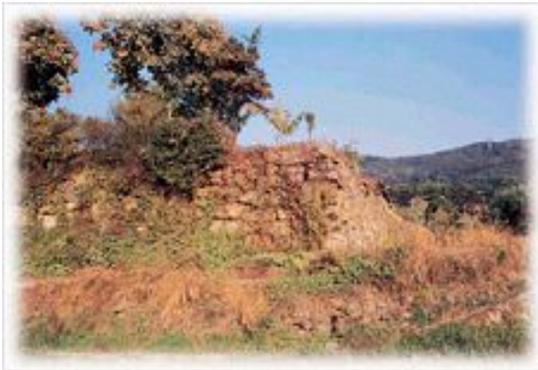
해발 80.6m의 능선과 서쪽 능선 사이는 일부 단절되어 있는데, 성 안쪽으로 북문골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어 북문지로 추정된다. 이 능선에서 등산로를 따라 향교 동쪽으로 내려온 성벽은 단절되어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지만, 새마을회관 동쪽 아파트 뒤편의 터파기 현장에서 일부 성벽의 단서를 찾을 수가 있었다. 단면을 확인한 결과 신축된 서쪽 건물 담장의 동편에서는 암갈색퇴적토 층이 표토하 1m 정도 깊이로 구상을 이루며 형성되어 있었고, 그 서쪽으로 올라오면서는 상부가 삭평(削平)된 판축의 흔적이 조사되어 토성벽의 존재와 그 외곽에 호(濠)의 설치를 추정할 수 있었다. 부근에서 성벽석이 보이지 않는 점에서 볼 때 통상 평지는 방어력을 높이기 위하여 석축을 한 것과는 달리 고읍성에서는 토축을 하였으며 방어력을 높이기 위하여 호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성내에 향교와 교리부락,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어 성내 시설물의 존재를 확인할 길이 없다.

이상에서 행정문화재로 읍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고려 중기를 기점으로 부산은 상당한 세력을 가진 지역으로 발전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부산의 성세와 관련하여 살펴 볼 수 있는 것이 분묘와 출토유물 즉 사직동, 만덕동, 망미동, 연산동, 거제리, 구포동, 명장동 지역의 분묘와 그 곳에서 출토된 청자편, 백자편, 분청사기 등의 유물이 있다. 이들 분묘는 거의 파괴되었고, 출토유물도 소량으로 파괴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고려시대 민묘의 발굴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한정된 지역에서 다양한 분묘와 출토유물이 나왔다는 것은 부산의 발전상과 관련지어 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IV. 지방불교와 문화재

불교는 고려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상으로써 최고의 전성기를 보았다. 그러나 부산은 수도 개경과 멀리 떨어진 지역이므로 상대적으로 불교의 흔적을 볼 수 있는 문화재가 수적으로는 많지 않다. 그러나 부산지역의 불교문화재가 고려 전시기를 통해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이 지역에 불교와 또는 그와 관련된 세력권의 상존을 추측할 수 있다.

### 1. 사찰



만덕사지(부산시 북구 만덕동)

불교문화재로 대표적인 것이 사찰이다. 고려시대 부산지역의 사찰로 들 수 있는 것이 만덕사지이다.<sup>31)</sup> 만덕사지는 동래 온천동에서 구포로 넘어가는 만덕고개의 서쪽산 중턱에 있는 사찰로써 현재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428번지에 주소를 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만덕사지를 고려시대 사찰이라고 보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그것은 만덕

31) 만덕사지에 대한 발굴은 현재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본 논문의 만덕사지에 관한 것은 2차 발굴조사 보고서를 참조하였다(부산직할시립박물관 유적조사보고서 14책, 『부산만덕사지Ⅱ』,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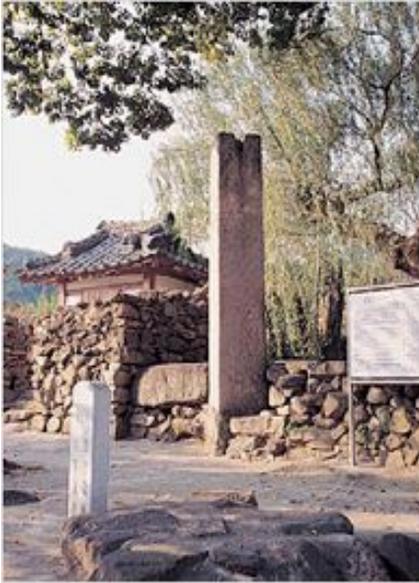
사라는 사찰이 전국의 다섯 곳에 있어,<sup>32)</sup> 『고려사』에서 언급한 만덕사가 꼭 이곳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1990년 10월 만덕사지 발굴에서 와당류·도자기류·석조물이 출토되기는 했으나, 기비사(祇毗寺)란 명문기와가 출토되었을뿐, 만덕사와 관련된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 문헌에서 기비사란 사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단 기비사와 관련된 명칭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輿地圖書)』의 동래현조에 기비현(其比縣)이란 고개명이 나온다. 이 고개는 구포로 넘어가는 고개로서 현재 만덕고개라 부른다. 만덕고개와 관련된 만덕령이라는 지명은 1890년도 제작으로 추정되는 『부산의 고지도』(부산광역시립박물관 소장)와 동래부지도에서 확인된다. 이전의 지도인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현재의 만덕고개가 기비현이라 표현되어 있다. 그러므로 1860년대 이후에 이곳을 만덕령이라고 불렀으리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출토된 대부분의 유물인 기와나 자기의 특징으로 보아서는 고려시대에 존재한 사찰임에는 틀림없다. 또 만덕사의 존재 시기를 알 수 있는 것으로 현재 흩어져 있는 두 개의 옥개석과 부재들을 수습하여 복원되어 있는 쌍탑이 있다. 이 쌍탑은 기단이 폭 78.5cm, 길이 157cm, 높이 31cm의 장방형 지대석(地台石)을 깔고 그 위에 4장의 면석을 세우고 2장의 기단갑석으로 덮은 간략한 단층기단의 3층 석탑이다. 이러한 석탑 양식은 나말여초의 것이기 때문에 만덕사지도 이 시기에 축조된 것이 아닌가 한다.

만덕사는 앞서 보았듯이 고려 충혜왕의 서자인 석기의 유배지로 사료에 등장한다. 왕자의 지위에 있는 석기가 유배를 정도라면 상당한 사격(寺格)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만덕사의 사격을 추

32) 만덕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찰은 전국에 다섯 곳에 있다. ①경기도 개성에 있는 절 ②충남 사천군 대둔산에 있는 절 ③전북 금산군 진작산에 있는 절 ④전남 강진군에 있는 절 ⑤부산 만덕동에 있는 절(이상은 『불교사전』, 통도사 법보원 간행, 1961을 참조).



만덕사지 당간지주

측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하게 보인다. 먼저 1, 2차 발굴에서는 암수막새, 명문화, 치미, 평기와, 전 등이 다양하게 출토되었고, 그 중 신라 황룡사와 같은 웅장한 대형 치미는 당시 만덕사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석탑에 세워졌던 원위치도 막연히 현재 남아 있는 제일 큰 법당지로 추측했는데, 기단 지대석 1개가 좀 더 떨어진 논 가운데서 나온 것으로 보아 상당히 넓은 지역을 만덕사가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사격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또

이곳에 지름 90cm, 두께 30cm 가량의 화강암석재로 만들어진 석조 불상대좌(石造佛像臺座)가 있는데, 상당히 크고 화려한 품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모습은 불에 그을려 적갈색으로 변했고 풍화가 심해 연판(蓮瓣)의 끝이 많이 손상되었지만 원래는 1m가 넘는 크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연판 밑에는 8각의 괴임이 있어 전형적인 대좌형식을 갖추고 있다. 연판은 중판단엽(重瓣單葉)의 연화문인데 외판에는 화문(花紋)을 두드러지게 양각한 비교적 아름다운 연화대석이다. 이 연화대석의 제조 시기도 고려시대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여러 가지를 추정해 보면 만덕사가 고려시대에 상당한 사격을 가진 사찰이며, 초창해서 폐사될 때까지 여러 차례 증개축이 있었고 그동안 사명(寺名)도 개명되었을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절의 폐사시기는 알 수는 없지만 출토유물이 고려와 조선초기에 한정되므로 조선이

건국된 지 얼마 후에 폐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만덕사지에는 당간지주(부산광역시지정 유형문화재 제14호)도 있는데, 높이 3.5m, 40×60cm의 석주(石柱) 하나만 남아있다. 이 당간지주는 통일신라 9세기 범어사의 당간지주 보다 더 잘 정제되어 있어 고려시대 제작으로 추정하고 있다.

## 2. 탑

고려시대의 탑은 석탑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부산지역의 탑을 살펴보기 이전에 고려시대 탑의 전형적인 양식에 대해 알아보자.

고려시대의 석탑은 신라 석탑의 전통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약간의 변형을 시도하여 일반화된 양식으로 성립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석탑양식이 이루어져 전국으로 확산되는 반면 일부에서는 지역색을 띠는 석탑의 조성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백제지역에서는 백제식의 색채를 드러내는 석탑이 부활되고, 영남지방에서는 통일신라 석탑 양식의 전통이 강하게 계승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신라탑을 계승했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석탑이 일반적으로 탑신부의 각 부재가 폭에 비하여 높아져서 전체적으로 고준해지며, 옥신 밑에는 별석이 삽입되기도 한다. 옥개석의 처마 밑이 전각에서 심하게 반전되며, 옥개받침의 수가 줄어든다. 초층옥신 밑의 별석 또는 기단갑석 상면에는 연화문이 조식되기도 한다. 아울러 이중기단과 함께 단층기단도 유행하며, 다층석탑이 많이 건립된다. 이처럼 고려의 석탑은 신라의 전형양식을 따르면서도 부분적으로 변화를 보임으로써 전체적인 조형 감각이 달라지고 있다. 즉 신라시대의 조형이 명쾌하면서도 장중하여 안정된 비례를 보여주는데 반하여 고려시대의 석탑은 둔후하고 고준하여 불안정감을 주고 있다. 물론 거탑이 건립되기도 하지만 정신과 기술 양면의 변화가 비례의 불안정, 형태의 왜소화,

그리고 조형감각의 둔화를 가져오게 된다. 즉 한마디로 신라탑은 당당한 느낌을 주는데 고려탑은 유연한 감은 있으나 대부분 늘씬한 형태를 이루어 안정감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탑의 양식이 나타나는 것은 신라불교가 지방으로 전파되면서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신라석탑의 조형이 쇠잔해진 가운데 각 지방의 우수한 석탑의 여파가 시대를 불문하고 지방양식의 모델로서의 영향을 미치거나 토착세력의 부각에 따른 새로운 형식의 교안, 북고풍 석탑에 대한 향수가 그 배경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이상의 고려불탑의 특징을 염두에 두고 부산지역의 탑을 살펴보기로 한다. 부산의 고려시대 탑은 10세기부터 고려 전시기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그럼 시기의 흐름에 따라 보도록 하자.<sup>33)</sup>

### 1) 원효암 동·서 3층석탑

이 석탑의 모습은 신라말기 불교가 지방으로 전래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불탑의 외소함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먼저 원효암 동편 삼층석탑은 부산광역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11호이다. 범어사 대웅전 옆 대성암 가는 길목의 개울을 건너 등산길을 따라 약 40분간 걸어가면 원효암 내 입구에서 동편에 위치하고 있다. 전체적인 조각 수법으로 보아 신라말기나 고려 초기로 추정된다. 현재 원효암 입구의 오른쪽 공터에 있으며 큰 지대석 위에 3층의 탑신부만 남아있다. 이 탑의 형식상 2층의 기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탑신석에는 귀 기둥을 조각하였으며 옥개석의 옥개석 받침은 4단씩 되어 있다. 그러나 제 2탑신의 옥신석과 제3탑신석은 비레나 성질로 보아 뒤에 보충한 것으로 석탑의 우란 끝의 연결이 일직선을 구성하지 못하는 것이 흠이라

33) 탑에 대한 것은 「고려시대의 문화재」 『부산시사』1 제1장 문화재, 1989를 참조하였다.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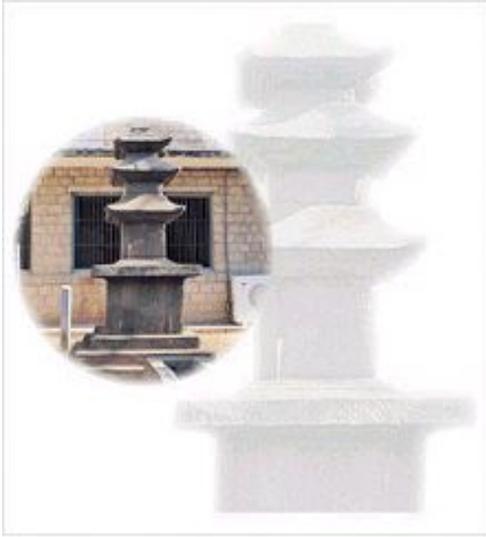
원효암 동편 3층석탑



원효암 서편 3층석탑

원효암 서편 3층 석탑은 부산광역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어 있다. 원효암내 입구에서 서편에 위치하고 있다. 건립연대는 원효암 동편 석탑과 더불어 10세기 경으로 신라말이나 고려 초기로 추정된다. 지금의 원효암 서북쪽으로 약 30미터 떨어진 공터에 있었던 것을 현 위치에 이전하였다. 원래는 2층 기단 위에 삼층 탑신부를 세우고 그 위에 상륜부가 있었을 것이나 하대 중석, 하대하석 등과 상륜부가 없어졌으며, 상대중석의 소형석재도 원래의 것이 아니라 아마도 하대중석의 일부이거나 다른 석탑의 부재일 것으로 보인다. 각층 옥개석에는 3개의 옥받침이 있고, 옥신석에는 귀기둥이 조각의 부재일 것으로 보인다. 2층과 3층의 옥신석은 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조립시 위치가 약간 어긋나 있으나 전체적으로 아담한 석탑이라 할 수 있다.

## 2) 3층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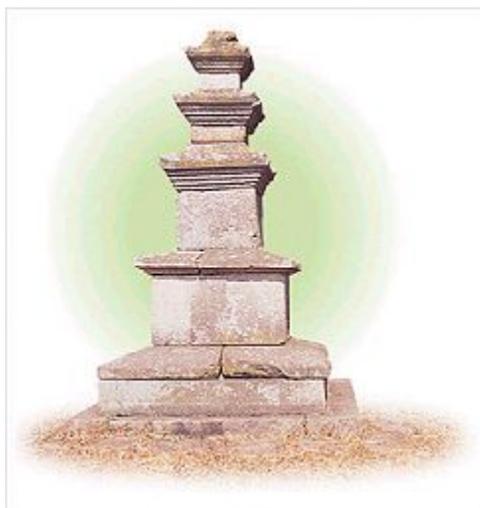
3층석탑(동아대 박물관 소재)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석탑은 원래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상천리의 폐사지에 무너져 있던 것을 1960년 동아대학교 박물관으로 이전 복원한 것이다. 현재 상층기단 위에 3층 탑신과 노반을 올려 놓아 높이 약 2.7m이다. 이전 때 하층기단은 수습하지 못하였으므로 원래 기단이 2층이었는지 단층이었던지는 알 수 없다. 기단의

면석은 귀기둥이 새겨진 4장의 판석으로 되었는데 그 결과가 매우 정교하여 마치 단일석으로 된 것 같이 보인다. 갑석은 1장의 판석인데 상면에 3단의 괴임으로 탑신을 받치게 하였다. 탑신은 2층 옥신석의 높이가 1층의  $\frac{1}{3}$  정도로 크게 줄었으며 3층은 약간 줄어서 적당한 비례로 체감되어 안정감이 충분하다. 각층의 옥신석과 옥개석은 각기 단일석으로 만들었는데 옥신석에는 귀기둥을 새기고 옥개석에는 위에 1단의 괴임과 밑에 3단의 얇은 받침이 있다. 옥개석은 지붕면이 두툼하여 경쾌한 맛은 없으나 추녀가 네 귀에서 살짝 치켜져서 둔중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 탑은 각부의 비례가 적당하고 중량감이 있으며, 별다른 조식이 없어 평범 소박하면서도 치석과 결구가 정미하여 간명한 조형미를 보여주는 가작이라 하겠다. 이 탑의 원소재지인 상천리의 폐사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

다.

### 3) 범방동 3층석탑



범방동 3층석탑

이 탑은 부산광역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23호로 보호받고 있고, 강서구 범방동 탑동에 위치하고 있다. 이 석탑은 2층기단의 전형적인 3층석탑인데 상층기단의 면석 한장과 3층 옥신석이 없어지고 탑 두부는 노반이 남아 있어 현재의 높이 2.7m의 소형탑이다. 하층기단의 너비 180cm, 높이가 45cm로 각면에 귀기둥과 중간기둥 한 개씩을 새겼

으며 4매로 짜여진 두툼한 갑석을 얹었다. 상층기단은 너비 90cm, 높이가 65cm로 각면에 귀기둥과 중간기둥을 새겼으며 대소 3매로 된 알팍한 갑석을 얹어 탑신을 받치고 있다. 탑신은 옥신과 옥개를 각기 단일석으로 만들었는데 옥신석에는 귀기둥을 새기고, 옥개석에는 위에 1단의 괴임과 밑에 4단의 받침이 있다. 추녀는 수평을 이루고 전각은 약간 반전하였다. 처마가 짧은데다가 그 밑에 4단의 받침을 깎아서 얼핏 보기에 전탑의 처마같은 인상을 준다.

옥신석의 높이가 2층에서 크게 줄어든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시대적 특징이다. 이 탑은 일부 결실된 부분이 있으나, 신라석탑양식으로 아담한 탑으로 고려초기의 건립으로 추정된다. 1940년 경 이 탑의 1층 탑신에서 사리장치와 기단 안에서 불상 1구가 도굴되면서 탑도 파괴된 것을 동민들이 재건하였다고 한다. 이 탑의 북쪽

에 법당자리로 추측되는 높이 2m 가량의 평지가 있으나 축대나 계단 같은 시설은 남아 있지 않으며 절 이름도 전하지 않는다.<sup>34)</sup>

#### 4) 5층석탑



5층석탑(부산대 박물관 소재)

부산광역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9호로 보호되고 있다. 이 탑은 원래 경남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탑골 대곡사지에 무너져 있던 것을 수습하여, 기단의 일부와 상륜부를 보완하여 복원 제작한 것이다. 단층기단 위에 5층 탑신을 올려 놓은 석탑인데 높이 3.2m로 약간 고준한 감이 있으나 고려석탑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다. 기단은 단층인데 면석에 귀기둥과 중간기둥을 새긴 것밖에 아무런 치장없이 간명하게 꾸몄으나 감석이 너무 얇고 작아서 기단부가

빈약해졌고 따라서 탑 전체의 안정감도 부족하게 되었다. 탑신은 1층에 비하여 2층의 높이가 1/2정도로 크게 줄었고 3층 이상은 층마다 약간씩 체감되었다.

제1층 탑신의 옥신석에는 귀기둥 사이의 사천왕상을 1구씩 부각하였다. 이 사천왕상은 조각이 정교하지는 못하나 선이 부드럽고 각 천왕의 특징이 잘 표현되어 이 탑의 특색이 되고 있다. 옥개석은 비교적 경쾌한 편으로 위에 1단의 괴임과 밑에 3단의 받침이 있으며, 추녀는 네 귀에서 살짝 치켜져서 아름다운 곡선을 이루었다. 상륜부는 재건시에 반타원형의 보주를 보충하였다. 원소재지

34) 박경원, 「김해군의 불적」 『고고미술』 제7권 8호, 1966.

인 대곡사지의 유래에 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 5) 고려 5층 석탑

부산광역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13호로 보호받고 있다. 이 석탑은 2층 기단 위에 5층 탑신을 올려놓은 전형적인 고려석탑인데, 현재 하층기단과 제5층 옥개석이 없어지고, 기형의 상륜부를 근년에 보충하였기 때문에 탑의 모양이 이상하게 되어 있다. 현재 탑의 높이는 4.2m로서 약간 고준한 감이 있으나 안정감은 충분한 편이다. 하층기단이 없어져서 기단부의 원형은 알 수 없으나 상층기단의 갑석이 넓고 상면은 상당한 구배가 있으며 그 위에 3단의 모를 죽인 괴임이 있어 얼핏 옥개석 같이 보이기도 한다. 탑신은 2층 옥신석의 높이가 크게 줄었으나 3층부터는 갑축비율이 근소하다. 1, 2층은 옥신석과 옥개석이 따로 되어 있으나 3층부터는 옥신이 그 아래층 옥개석과 단일석으로 만들어졌다.



고려 5층석탑  
(동래구 온천동 소재)

옥개석의 추녀는 중앙에서 네 귀로 완만한 곡선을 이루어 목조 기와집의 지붕과 같은 형태를 이루었다. 처마 밑의 받침은 2층까지는 4단이고 3층부터는 3단으로 줄었다. 이 탑은 고려석탑의 특색을 갖춘 석탑으로서 하층기단과 5층 옥개석을 보관하면 전형적인 고려석탑으로 복원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탑의 원소재지는 경북의 어느 지방이라는 설이 있는데 전에는 시내 중구 대청동 1가 9번지의 옛 후꾸다 별장에 있었던 것을 1957년 경 최모에 의하여 현위치로 불법 반출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탑은

국유지상에 있었던 귀속재산을 무단 점유한 것이라 하겠다.

## V. 왜구의 침입과 문화재

왜구의 침입은 고려 말 내우외환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고려의 큰 환난 중의 하나였다. 왜구의 침구목적은 당시의 일본이 남북조의 혼란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생활필수품을 얻는 것이었다. 즉 당시 일본은 남북조로 정권이 양분되어 중앙통치권이 지방에까지 미치지 못하였고 또 혼란기를 맞이하여 무사들은 쟁란에 편승하여 소유 영지를 확대시키고자 획책하였다. 이러한 사회정세 속에서 농지를 잃은 농민, 전쟁에 동원되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무력해진 하급무사, 열악한 환경과 적은 토지를 소유했던 대마(對馬)·일기(壹岐)·송포(松浦)의 3도민들, 그리고 겸창(謙倉) 중기 이후 지방에까지 침투해온 상품화폐경제의 압박 등의 여러 조건들이 일본의 서쪽 연안 일대의 중소영주층과 영세농어민을 자극하여 해적이 되게끔 하였던 것이다.<sup>35)</sup>

그리고 대몽항쟁 이후 삼별초항쟁이 좌절된 것도 왜구와 무관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삼별초정부는 조운이나 상업통로가 되는 해로 수로 등을 장악하고 일본, 남송과 연결하는 동맹체제의 루트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삼별초정부가 붕괴되면서 고려를 매개로 하는 해상루트는 사실상 차단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점이 고려말기 왜구가 빈번하게 출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sup>36)</sup>

고려시대 왜구는 1233년(고종 10) 5월에 ‘왜가 금주를 노략질하였다’<sup>37)</sup>는 기록을 시작으로 고종대에만 5차례의 침입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일본은 고려에 국사를 보내어 사죄하고 호시(互市)를

35) 나종우, 「홍건적과 왜구」 『한국사』 20, 국사편찬위원회, 1994.

36) 채상식, 「고려시대의 부산」 『부산시사』 1, 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89.

37) 『고려사』 권22, 고종 10년 5월조.

열어줄 것을 간청하였으며, 고려도 일본에 사신을 보내어 침입을 막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고려와 일본 정부의 노력으로 왜구의 침입은 점차 약화되었으나 충정왕대부터 그 횡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1350년(충정왕 2) ‘왜구의 침입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sup>38)</sup>고 할 만큼 왜구의 침입은 매년 있었다.

왜구 침입의 주된 목적이 경제적인 약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대상지역은 근해지역에 있는 남해안지방과 곡창지대, 그리고 조운선(漕運船)의 통로 연안지역이었다. 즉 삼남 지방의 연해지방인 경상도·전라도·충청도가 주된 약탈지였고, 그 외 경기·황해·강원·평안·함경도 등에 이르기까지 왜구의 약탈이 미치지 않은 지역이 없었다.

왜구침입은 고려 전국토에 미쳤는데, 침입의 규모는 『고려사』 『고려사절요』에 의하면 적은 경우에는 20여 척, 많은 경우에는 400여 척으로 그 수는 3000명에 달했다는 기록이 있다.<sup>39)</sup> 그들의 선단은 군사상 중요지점인 함포병영을 습격하거나, 조운선을 탈취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한 해적의 오합지졸이 아니라 그 배후에 일본의 토호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왜구침입에 대해 고려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시도하였다. 먼저 직접적인 대응책으로 토벌에 중점을 두었다. 즉 소수(戍所)를 설치하고 읍성을 수축 또는 증축하는 등 방어시설을 갖추었고, 더 나아가 대마도 정벌까지 단행하였다. 또한 이러한 무력적 토벌을 단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고려정부는 일본에 사절을 파견하여 왜구금지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공민왕 15년 검교중랑장 김일(金逸)과 만호 김룡(金龍) 등을 파견하였는데, 이들은 경도(京都)에 도착하여 일본정부의 대표자인 실정막부의 장군을 만나 논의한 결과 왜구를 금지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sup>40)</sup>

38) 『고려사』 권26, 충정왕 2년.

39) 『고려사』 권112, 설손 부 장수전.

40) 채상식, 앞의 논문.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왜구의 침입은 고려정부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특히 이들의 공격대상이 조운선 등에 미치게 되자 고려정부의 조세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360년(공민왕 9) 강화도에서 조창미 4만 여 석을 비롯하여 안변 등지에서도 1만 여 석을 약탈당했다는 기록<sup>41)</sup>에서도 보이듯이 조운선과 조창의 약탈이 거듭되자 조창미가 제대로 저장되지 못하였고, 이에 조창을 내지로 옮기거나 폐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왜구침탈은 지역적으로 경상도에 가장 많은 사례를 볼 수 있다. 그것은 충정왕 이후 왜구침입의 횡수가 전체적으로 472회인데, 그 중에서 경상도지역은 152회에 걸치고, 특히 경남지역은 99회나 된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sup>42)</sup>

다음은 부산 지역의 왜구침입사례를 보도록 하자.

- ① 기사일에 왜구가 동래군을 침략하였다.<sup>43)</sup>
- ② 공민왕 10년 8월 계사일에 왜적이 동래(東萊)와 울주(蔚州)에 침입하여 불을 지르고 약탈하였으며 그 조운선을 빼앗아 갔다. 또 양주(梁州), 김해부, 사천, 밀성군에도 침입하였다.<sup>44)</sup>
- ③ 왜가 진주의 명진현을 노략질하였다. 또 함안·동래·양주·언양·기장·고성·영선 등을 불태우며 노략질하였다.<sup>45)</sup>
- ④ 기해일에 왜적이 밀성군과 동래현을 침공하였다.<sup>46)</sup>
- ⑤ 왜가 함포영을 불태우고 양주 울주 및 의창·회원·함안·진해·고성·반성·동평·동래·기장 등의 현을 불태우고 노략질하였다.<sup>47)</sup>
- ⑥ 왜적이 40척의 전함으로 동래현을 침공하였다.<sup>48)</sup>

---

41) 『고려사』 권39, 공민왕 9년 윤5월조.  
 42) 나종우, 앞의 논문, 396-397쪽 표 참조.  
 43) 『고려사』 권37, 충정왕 2년 11월조.  
 44) 『고려사』 권39, 공민왕 10년 8월조.  
 45) 『고려사』 권135, 신우 2년 11월조.  
 46) 『고려사』 권135, 신우 2년 11월조.  
 47) 『고려사』 권135, 신우 2년 12월조.

⑦ 왜적이 울주에 침입하여 곡식을 베어 양식을 하며 기장까지 침입하였다. 우인열이 군사를 모아 동래에서 싸워 적 7명의 목을 베었다.<sup>49)</sup>

이상이 왜구가 동래·기장 지역에 침입한 기록이다. 침입의 횟수도 많지만 그 피해정도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왜구의 침입에 대해 다각적인 활동을 벌인 것 중 문화재와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성의 수축과 개축이다. 먼저, 동래현성을 해운포지역에서 지금의 동래시장 쪽으로 옮겨 새로운 읍성을 수축한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3, 동래현 성곽조, 이첩의 읍성기에 의하면 「원수 박공이 일찍이 김해부사로 있을 때 처음으로 망산성을 지킬 것을 준비하였다. 사졸들이 익혀서 한 번 시험코자 할 때에 적이 개미떼처럼 몰려왔다. 공이 사졸들에게 영을 내려 들어가 지키게 하고 화살과 돌을 내려 쏘니 쥐같은 무리들이 죽고 도망하여 외로운 성이 우뚝하여 범하지 못하였다. 인하여 적의 수급을 조정에 바치니 왕께서… 드디어 각도에 영을 내려 연변 군현은 각기 성보를 설치하여 지키게 하라고 하였다. 그런 연후에 변경이 안정되고 평온해졌다. 공은 이에 첩문을 발송하여 장정을 내게 하고 성 쌓는 것을 살펴서 정묘(신우 13, 1387) 8월 19일에 시작하여 달을 넘겨 완성하였다」고 하는 것에서 동래성은 왜구의 방어책으로 전국의 수축령이 내린 가운데 박위(朴葦)의 감독 하에 수축되었다. 또한 기장성도 고려말에 사료에 등장한다. 즉 『고려사』에 기장군(機張郡)과 해주(海州) 웅진(甕津)에 성을 쌓았다<sup>50)</sup>는 것이다.

이러한 성의 수축과 개축에 대한 것은 앞서 행정문화재 부분에 언급이 되었으므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성의 수축

48) 『고려사』 권133, 신우 3년 10월조.

49) 『고려사』 권114, 우인열전.

50) 『고려사』 권82, 병2, 성보 공양왕 3년 3월조.

과 개축이 진행된 시기인 공민왕과 우왕대는 왜구 침공의 소강기이다. 왜구의 침공이 소강기를 가지게 된 이유는 우선 화약 화포 등의 신병기로 인해 고려군의 전력의 강화되었다는 점<sup>51)</sup>을 들 수 있으며, 이것이 공양왕 원년에는 박위의 대마도정벌로 이어지게 된다.

또 성의 수축과 개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대왜정책의 일환이었다.<sup>52)</sup> 즉 우왕대에 해운포지역에서 지금의 동래시장 쪽으로의 옮긴 것,<sup>53)</sup> 공양왕대에 기장성을 수축한 것 등이 성공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왜구의 침공이 소강기에 접어들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기장은 왜구침공에 대한 방어책으로서는 중요한 지역으로 보인다. 그것은 현종 9년에 울주와 양주에 방어를 두면서 지리적으로 해안선을 통해 연결되어 있고 해안방어의 필요에서 기장을 울주에 소속시키고 있는 것에서도 보듯이 군사적인 요충지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sup>54)</sup> 따라서 이 지역에 군사적 요새지로서의 시설이 많이 설치되었던 것이다. 이것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 문화재가 봉수대이다.<sup>55)</sup> 고려시대에 이 지역의 봉수대의 기록은 살펴 볼 수는 없지만 왜구의 침공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정보의 전달이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51) 『고려사』 권133, 신우 3년 10월조, 「처음으로 화통도감을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판사 최무선의 건의에 의한 것이다」.

52) 고려말기에 전국에 성의 수축과 개축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심정보, 『한국 읍성의 연구』, 학연문화사, 1995에 잘 나타나 있다.

53) 1387년에 동래현청을 동래지역으로 옮긴 것은 왜구 침공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이었다. 지금의 동래시장 일대는 전방이 황령산에 의해 폐쇄되어 천연의 엄폐지를 제공받을 뿐 아니라 그 대안으로써 대포산이 위치하고 있어 왜구에 대한 방비에 유리한 지형을 갖추고 있다. 또한 고려시대에 만든 것은 아니지만 동래성곽 시설 가운데 암문이 있는데, 이는 기장쪽으로 향해 있어 기장세력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북천박물관 연구총서 제13집 『동래읍성지』, 2001).

54) 김기섭, 앞의 논문.

55) 기장 지역에서 현재 확인되는 봉수대는 4곳(남산·아이포·임랑포·이길)이다. 특정한 지역에 많은 봉수대가 설치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적의 침입의 정보를 알 수 있었던 봉수대의 설치의 필수적이지 않을까 한다.

우리나라 봉수대는 일찍이 삼국시대부터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본격적으로 법제화된 것은 고려시대였다. 서공의 『고려도경(高麗圖經)』에 의하면 ‘송나라 사신이 흑산도에 들어서면 때면 야간에는 인근 지역의 산꼭대기 봉수에 순차적으로 불을 밝혀 왕경인 개성까지 인도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sup>56)</sup> 봉수제가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에 의하면 서북면 병마사 조진약의 건의에 의하여 봉획식을 정하였는데, 평소 밤에는 불, 낮에는 연기를 각기 하나로 하고 변방이 위급한 상황이면 둘, 적의 침입으로 전투 임박 상황이면 셋, 적과 접전의 상황이면 넷으로 하였다<sup>57)</sup>. 조선의 봉수제는 고려시대 봉수제도를 토대로 정비하였다.

원래 봉수란 용어는 밤에 불로서 알리는 봉인 연봉과 낮에 연기로 알리는 수, 즉 번수를 합친 말이다. 그러므로 흔히 일컬어지는 봉화란 것은 야간의 연봉만을 말하는 것이나 후에 주간의 번수까지 합친 뜻으로 쓰여져 고려말기 이래로 통칭되었다. 연봉이든 간봉이든 신호를 알리기 위하여 대략 수십리 거리를 두고 전망과 관측이 용이한 산마루에 봉수대를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변경의 봉수대가 위급한 사정을 알게 되면, 이를 즉시 밤에는 횃불로써, 낮에는 연기로써, 또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어서 횃불이나 연기로 연락이 불가능할 때는 봉수군이 직접 달려가서 알림으로써 차례대로 전달하여 중앙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봉수의 관장은 그 기능상 군사 책임자가 맡았지만, 지방은 수령이 그러한 일을 했는데, 봉수군의 근무활동을 수시로 감독하고 연대책임을 졌으며, 그들의 차출과 근무현황은 물론 봉수대 시설의 이상 여부를 항상 살펴야했다.

봉수는 연락을 그 기능으로 하기 때문에 각 봉수대는 이웃 봉수

56) 『선화봉사 고려도경』 권35, 해도2, 흑산도.

57) 『고려사』 권81, 병1, 병제사, 의종 3년 8월조.

대와 연락망을 이루고 있다. 봉수의 연락망은 기능의 중요성에 비례하여 간선과 지선으로 나뉘었다. 간선은 변경지방에서 중앙으로 직접 통하였기 때문에 직봉이라 하였고, 그 사이에 보조선으로서의 지선이 있었는데, 이를 간봉이라 하였다. 조선시기의 기록인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를 참고하면 고려시대의 봉수대의 연락망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으리라 본다. 『증보문헌비고』에 의하면 전국 봉수의 주요 간선은 5개의 직봉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즉 동북쪽 두만강변의 함경도 서흥 서수라 우암봉수대, 동남쪽 해변의 경상도 동래 다대포의 응봉봉수대, 서북쪽 압록강변의 평안도 강계 만포진 여둔 봉수대, 서남쪽으로 전라도 순천 방답진의 돌산 봉수대 등을 기점으로 하여 정해진 노선에 따라 서울의 목멱산 봉수대로 집결토록 하였다. 고려시대의 동래의 간비오산 봉수대와 기장의 남산 봉수대<sup>58)</sup>는 간봉 1로에 속하였다.

다음은 참고로 조선시기에 간봉 1로의 연결망을 살펴 보았다.

초기 간비오산(干飛鳥山:동래)→남산(南山)→아이(阿爾)→이길(爾吉:울산)→가리하산(加里下山)→천내(川內)→남목(南木)→하서지(下西知)→독산(秃山)→복길(福吉:홍해)→뇌성(磊城)→발산(鉢山)→대동배(大冬背:영일)→지을(知乙:홍해)→오봉(烏峰)→도이산(桃李山:청하)→별반산(別畔山:영덕)→대소산(大所山:영해)→광산(廣山)→신법산(神法山)→약산(藥山)→신석산(新石山)→봉지사(峰枝山:安東, 直烽) 봉수로 전달되어 경북·충북·경기도를 거쳐 광주 천천령으로 전달되었다.<sup>59)</sup>

그러면 부산지역의 고려시대 봉수대로 간비오산의 봉수대와 기장의 남산봉수대를 보자. 먼저 간비오산의 봉수대의 설치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세종 7년(1461)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고려말부터

58) 1425년에 편찬된 『경상도지리지』에는 기장 지역의 4곳의 봉수대가 모두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봉수대가 고려시대에 이미 완비되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남산봉수대만 설명하기로 한다.

59) 이종봉, 「기장지역의 문화재」 『기장군지』, 기장군지편찬위원회, 2001.

해운포 일대에 침입한 왜적을 감시한 곳이라 추측된다. 또한 남산 봉수에 대한 기록도 고려시대에는 보이지 않지만 고려시대가 봉수가 정비된 시기이고 고려 성종 4년(985)에 설치되었다고 전하며 1425년에 편찬된 『경상도지리지』에 그 기록에 보이므로 적어도 고려말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봉수대는 아마 고려시대 왜구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닌가 한다.

기장의 남산봉수대(부산광역시 문화재 자료 제2호)에 관해 살펴 보도록 하자.<sup>60)</sup> 기장읍 죽성리 산52번지의 해발 228m의 봉대산 동쪽 해발 225m에 위치하며, 신천마을에서 등산로를 따라 도보로 약 30분이면 오를 수 있다. 봉수대에 오르면 대변향과 죽성만은 물론 동으로는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간절곶 앞 바다까지, 남으로는 송정 앞 바다까지 조망할 수 있는 요지이다.



기장 남산 봉수대(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어지는데 남서쪽으로는 자연 남반이 우뚝 솟아 서쪽으로 연이어 있다. 북쪽으로는 봉돈(烽墩-煙臺) 기저부에서 담장까지 수평상을 이루다가 다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서북쪽 봉돈 아래에는 현재 산불 감시초소가 있으며 이 주변으로 기와편이 많이 눈에 띈다. 이곳에서 북쪽으로는 비교적 완만하게 경사져 헬기장의 평지로 이어진다. 봉수대는 동쪽의 정상에 위치하는데 봉돈은 원형으

60) 기장지역의 남산봉수대에 관해서는 『기장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8을 참조하였다.

로 동서직경 약 7m, 남북직경 약 5m 규모이다. 봉돈 상면에는 연소부로 보이는 약 4m×5m 규모의 장방형의 석실이 확인된다. 이 석실은 황혈식석실의 연도처럼 입구 중앙이 남쪽으로 트여 화구로 추정되며 폭은 약 1.5m 정도이고 그 안쪽에는 냇돌로 채워져 있다.

봉돈의 기저부는 남서쪽 일부와 서북쪽에서 확인되었다. 남서쪽은 60×40×40cm 크기의 돌로 쌓은 3단의 석축이 보이나 일부 변형된 상태이고 서북쪽의 석축은 40×30×30cm 크기의 석재로 「품(品)」자형 쌓기를 하였고 3-4단의 석축이 높이 1.2m 정도로 남아 있다. 석축의 상부는 외전상 토석혼축으로 되어 있다.

봉돈의 외곽에 담장이 설치되어 북쪽으로는 봉돈 외벽에서 약 10m 바깥지점에서 확인되면 담장 내에 약간 패인 곳과 용도미상의 석축유구가 있어 산전되는 기와와 함께 건축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동쪽으로 가면서는 담장과 봉돈 사이의 폭이 점점 줄어들어 봉돈에서 3m 정도 밖에서 담장이 확인되는데, 경사가 가파른 때문인지 내탁식으로 보이는 담장이 확인된다. 이 담장은 남쪽으로 가면서 암벽지대와 연결되어 산불감시초소 아래 담장과 마주친다. 담장의 두께는 일정하지 않으나 2~2.5m 정도이며, 잔존 높이는 1.5m이고, 직경 20~30cm 크기의 돌로써 막쌓기를 하였다. 외전상으로는 담장의 외곽에 호가 설치되지 않은 듯하나 남쪽의 경우 봉돈의 외곽 약 10cm 밖에 두 번 정도 단이 이어져 방어를 위한 호가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남산봉수는 문헌에는 남상연대라고도 하였는데 경상도 동래에서 경북 충북 경기도를 거쳐 광주 천천령으로 연결되는 제2로 봉수에 속하는 간봉 중의 하나이다. 남쪽으로 해운대구 장산의 남쪽 산봉우리에 있는 간비오산봉수대에서 초기하여 북으로 직선거리 약 10.5km 떨어진 장안읍 임랑리 뒷산에 있는 임랑포 봉수대와 연결되었으며 임랑포 봉수대가 없어진 뒤에는 직선거리 약 4.8km 떨어져 있는 일광면 이천리 아미 봉수대와 연결되어 오다가 1894년 폐지되

었다. 읍지의 군병에는 봉군이 200여 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간비오산 봉수대는 현재 위치만 알 수 있고 현 구조물은 1976년 10월1일 새로이 축조된 것이다. 화강석 지름 11m, 높이 1.2m의 규모로 원형 축대를 쌓고 계단을 설치하였으며, 상단에 오르면 중앙에 지름이 2m, 높이 60cm인 연조 1구가 설치되어 있다.

왜구침입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상의 읍성과 봉수대만을 들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시설이 바로 산성이다. 동래와 기장지역의 산성으로는 금정산성과 기장산성을 들 수 있다. 특히 기장산성<sup>61)</sup>에서 채집된 유물인 토기와 기와편을 보면 그 시기가 통일신라시대에서 고려후기에 이르므로, 이 시기에 많은 산성의 활용을 확인할 수 있다.

## VI. 맺음말

이상에서 고려시대 부산지역의 문화재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에 대신하겠다.

부산은 지리적으로 고려시대의 수도인 개성과 많이 떨어진 지역이라는 것과 나말여초 시기에 반고려적인 지역적 분위기로 인하여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문화재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되었고 그 가치면에서도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덕천동에서 고급의 청자가 출토되고 난 이후 이러한 부산문화재의 인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부산의 고려시대 문화재는 주로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가 주류

---

61) 서부리의 기장산성은 기장 고읍성 이전의 읍치로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부리 산성의 축조시기가 고려시대 이전으로 소급될 가능성이 있고 신라시기는 산성입보가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문화재를 그 성격에 따라 행정문화재, 불교문화재, 국방문화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행정문화재란 행정업무를 보는 것을 주로 하는 문화재를 말하는 것으로 읍성을 가리킨다. 부산의 고려시대 읍성은 동래고읍성, 동평읍성, 기장읍성을 가리킨다. 고려시대의 부산은 앞서도 보았듯이 나말여초 시기에 반고려적인 지역적 분위기로 인하여 읍격이 신라시기보다 떨어져 주현인 아닌 속현으로 존립하였다. 따라서 행정성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관의 파견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고려초까지는 속현으로 있었기 때문에 부산에 지방관 파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고려중기를 전후로 하여 부산에도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먼저 동래지역에 지방관 파견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마 동래정씨 가문의 활약, 특히 정목·정항·정서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서는 인종과 동서지간이므로 상당한 문벌가문으로서 동래정씨가 성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동래지역이 상당한 지방세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동래지역의 읍성은 본래는 해운포지역에 있었다. 그러나 고려말기 우왕대에 왜구의 침입이 잦아져 지금의 동래시장 지역 일대로 읍성을 옮겼다. 이에 해운포지역의 읍성을 고읍성이라 부른다. 해운포지역은 지금의 수영구 망미동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지방병무청과 포스코 아파트 건설 지역 일대를 가리킨다. 우왕 때 옮긴 동래시장 일대의 읍성은 지금의 조선시대 유적지인 동래읍성 지역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동래읍성은 조선시대에 많은 수축과 개축이 이루어져서 고려시대의 모습을 잘 볼 수는 없지만 지금의 복천동고분군을 중심으로 서장대쪽이거나 동장대쪽으로 보고 있다.

동평현성은 동래읍성과 달리 고려시대 동안 주현으로 승격되지 못하였다. 동평현성이 주현으로 승격되지 못하였던 이유는 읍격에서 동래지역과 커다란 차이때문으로 보인다. 동평현성터는 지금의 당감동 지역으로 비정하고 있다. 기장지역은 통일신라시대부터 동래의 속현으로 강등되어 일찍부터 읍격이 쇠락하였다. 그러나 동

래현과 더불어 고려중기에 주현으로 승격되었다. 기장지역의 성과 관련된 기록은 『고려사』에서 공양왕대에 발견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이 지역의 성은 그보다 일찍 만들어졌다. 이는 기장지역이 고려중기에 동래의 속현에서 벗어나 주현으로 승격되어 지방관의 파견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기장성은 지금의 기장향교가 있는 교리지역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지역의 발굴결과 유물이 고려·조선의 것으로 일관되게 출토되어 이것을 증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 기장성은 행정성으로의 기능보다는 군사적인 기능이 더 중요하게 강조된 성곽이므로 고려말 왜구의 침입을 많이 받았을 것이고 이에 공양왕대에 성에 대한 수축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다음으로는 불교문화재에 대해 보도록 하자. 불교문화재로는 사지와 탑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지로는 만덕사지를 들 수 있는데 고려시대의 만덕사지의 사격을 볼 수 있는 것이 만덕사의 출토 유물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치미나 연화석조불상대좌 등은 상당히 크고 화려한 품격을 지니고 있다. 탑도 고려 전 시기에 걸쳐 고루 분포하고 있다. 고려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진 탑의 출토는 부산에도 불교문화가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방문화재는 몽고의 침입과 왜구의 침입과 관련지어진다. 이 글에서는 왜구침입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는데 주로 앞서 본 읍성과 봉수대 등을 살펴보았다. 부산은 왜구침입의 주요한 지역이었고 이에 정부에서도 이를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이런 결과 나온 것이 봉수대의 설치와 읍성의 수축과 개축, 또는 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부산지역의 고려시대 문화재를 살펴본 결과 부산지역은 고려중기부터 상당한 정도의 읍격을 가졌으며 이것은 고려말로 갈수록 더욱 부각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문화재의 수가 적다는 이유로 이 지역의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본다.